

檜細工

歴史

檜細工の始まりは、約400年前、尾口村深瀬(現・白山市深瀬)を訪れた旅の僧が農民に桧笠の製法を伝授したことと言われている。当時、村では人口が増加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田畑にできる土地が少なく、桧笠作りは農民の貴重な副収入にな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

桧笠は江戸時代中期には農耕用などに広く使用され、村の重要な産物になっていた。昭和6年(1931)には桧笠購買組合(のちの桧笠工業協同組合)を設立して共同作業所を建て、桧笠の生産も年々増加し、アメリカ向けの輸出用の色帽子も生産するようになった。網代(あじろ)天井や、各種のカゴ、花立などの民芸品にも応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

特色

檜細工は、原料のヒノキを薄く細い経木にしたもの(ヒンナまたはヘギ)を編んで作る。ヒンナ作りは、機械化により大量生産が可能となったが、ヒンナを編む作業は今も手作業で、熟練を要するものである。

現在は、桧笠のほかに、ナタ入れ、おぼけ(背負いかご)、かご、屑入れ、花立などの製品が作られている。また、いろいろの模様を編み込んだ網代天井は、尾口村(現・白山市)の民俗資料館で見ることができ、金沢市や小松市内の寺の天井に使われているところがある。



노송나무세공

역사와 특색

노송나무세공은 약 400년 전, 오구치무라 후카제(현재 하쿠산시 후카제)를 찾았던 한 스님이 농민에게 노송나무 갓 제조법을 전수한 것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는 노송나무 갓 제작은 농민들의 귀중한 부수입원이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송나무 갓은 에도시대 중기에는 농경용 등에 널리 사용돼, 마을의 중요한 특산품이었습니다.

노송나무 세공은 재료인 노송나무를 얇고 가느다랗게 깎은 가닥을 엮어 만듭니다.

현재는 노송나무 갓 외에, 손도끼집, 오보케(등에 지는 바구니), 바구니, 쓰레기통, 꽃꽂이 그릇 등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무늬를 짜 넣은 아지로천장은 오구치무라(현재 하쿠산시) 민속 자료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자와시와 고마쓰 시내 사찰 천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白山市(하쿠산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笠、おぼけ、かご、花器(갓, 등에 지는 바구니, 바구니, 꽃꽂이 그릇)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桧笠生産グループ(노송나무 갓 생산그룹) 〒920-2152 白山市明光4丁目83(하쿠산시 메이코 4-83) TEL (076)273-1723